

##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가? (눅5B)

성경말씀: 눅17:11-19

마지막 공생애 6개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다.

1. 미래를 생각하고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부자와 나사로 실화, 종교적 위선자들이 당하는 지옥의 실체
2.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믿음이 악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님, 성경, 구원 조롱 No!
3. 신자, 비신자 모두 우리에게 범법하고 실수 할 수 있다.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 하나님의 마음
4. 이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늘려주소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용서의 사람
5. 제자의 태도: 보상을 얻는 데만 치중하지 않는가? 우리는 무익한 종,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 설정을 바로 해야 한다.

### 현시대의 배은망덕

현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감사를 모른다.

5000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감사가 넘치나?

6.25 사변, 아이들 잃고 끌고 피난 가던 우리 선조들, 그래도 감사, 지금은 철철 넘쳐도 감사 No!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부모, 집, 자유, 공기, 교회 등)을 당연시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생 이야기, 학비만 연간 6천만원, 출생부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다. 사랑 많고 유복한 부모, 조부모, 의료 시설, 음악 레슨, 테니스 레슨, 때마다 가족 여행, 휴가, 요트 강습, 좋은 옷, 종교 교육, 유럽 교육 체험, 과외 활동 봉사, 좋은 차, 집, 신용카드, 대학 학비 부모가 대줌, 그런데도 매사가 불만이다. 항상 우울하다. 가족이 방해물, 모자란 것만 눈에 띈다. 주변 친구들은 그런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도 행복하다. 감사할 줄 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한다. 타락한 인간에게 내재된 속성,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 심하다.

교회는 어떤가?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배은망덕은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 <저항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가?>

### 나병 환자 이야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심(11)

나병 환자 10명의 등장(12), 찢어진 옷, 먹지 못해 영양 부족, 물골이 말이 아니다. 죄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음, 마을 밖, 멀리 떨어져서 머리에는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레14:45), 평생토록 소망이 없이 살아야 한다. 우리와 동일하게 혼을 가진 존재, 다만 3류 시민으로 그저 하루하루 부패해 가면서 일생 소진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 삶이 바뀐다. 간청: 예수님이여 공홀을 베푸소서(13). 단 하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자를 보아야만 한다.

주님의 처방: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4), Touch no,

이것은 나병이 나은 사람만 치르는 행위(레14),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하면 8일간의 정결예식, 귀향 아직 낫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 어쨌든지 10명이 동의하고 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됨(4). 거울이 없었으나 다른 사람을 보니 귀, 코 등 문드러진 데가 다시 살아나고 자기들의 손가락 등이 살아남,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명의 재출생 같은 일 나아만이 요르단에 몸을 일곱 번 담그고 치유받은 것과 비슷함(왕하5:1-14). 어린아이의 살 한 사람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도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15), 그리고 꿇어 엎드려 감사를 드림. 그는 사마리아 사람(16),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

몸에 변화가 생기자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먼저 옴. 저항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육신의 정결, 그러나 그는 먼저 영의 정결이 먼저 필요하였다. 예수님을 통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15), 엎드려 아들에게 감사(16), 큰 소리는 메가폰이다.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고백함

주님의 말씀(17-18): 10명이 치유되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 타국인만 왔느냐?

실제로 주님은 10명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함, 큰 실망

9명을 살펴보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1) 이들도 기뻐하였다. 행복했다. (2)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3) 하나님을 지정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4)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

핵심이 빠졌다(18), 그들은 물론 감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인가?

그들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빠졌다.

16장의 부자, 바리새인들 같지 않는가? 생각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다. 영적 차원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버리면 이 놀라운 기회가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 10명의 믿음 수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병을 앓다가 다 해 보고 안 되니까 무작정 예수님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 1명인가, 9명인가? 1명은 참 하나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고 나머지는 병 고침만 이야기하고 만다. 병 고침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자기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까지

주님의 축복(19), 돌아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1. 단순히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병이 치료되었다. 구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
2. 이스라엘 공영권 밖의 이방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종, 죄인, 남녀노소)
3. 그 결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로 표출되었다.

골1:11-14, 죄들의 용서, 신분 변화

고후2:14, 승리하는 삶

고전15:57, 부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심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급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요14:6)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대다수 유대인 No,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요1:11).

이유: 종교적 위선,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마9:13

이 수렁에 빠지면 죽도록 일하고도 지옥에 간다.

누가복음에만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10:30-37),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우려는 마음, 병이 나으니 낮게 해 주신 분을 구함 나머지 9명은 종교적 행사가 더 중요하였다(새벽기도, 주일성수 등).

9명은 제사장에게 의해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음

그런데 1명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다. 이 사람은 영의 문제까지 치유받으며 예수님께서 선언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뻐하는데 정작 그것을 베푸신 분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우리는 아닌가? 무엇을 감사할까? 구원, 가정, 성경, 교회, 국가(세계 경제 10대 국가)

매일 숨 쉬는 것, 먹고 사는 것

감사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린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야 한다.

찬송가 12장: 30년 전쟁(1618-1648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 Martin Rinkhart, 하루에 40명 장례(아내 포함), 이럼에도 그는 이처럼 아름다운 찬송 시를 지음, 397장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롬1:21).

특히 딤후3:1-2, “저항할 수 없는 감사를 표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